

법무부, 앨라배마 공중 보건부와 론데스 카운티 보건부에 대한 환경 정의 조사 발표

미국 법무부는 오늘 앨라배마주 공중보건부와 론데스 카운티 보건부의 폐수 처리, 전염병 및 발병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 정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조사는 표제 VI에 따른 법무부의 최초의 환경 정의 조사입니다.

민권부가 실시할 조사는 앨라배마 공중보건부와 론데스 카운티 보건부가 현장 폐수 처리 프로그램과 전염병 및 발병 프로그램이 1964년 민권법 표제 VI를 위반하는 론데스 카운티의 흑인 주민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해당 조사는 또한 보건 부서의 정책 및 관행으로 인해 론데스 카운티의 흑인 주민의 적절한 위생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되고 구충 감염과 같은 부적절한 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과도하게 및 부당하게 부담되게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는 "위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미국의 어느 누구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하수 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성으로 인해 질병 및 기타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 및 지역 보건 공무원은 연방 민권법에 따라 모든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정의 문제와 앨라배마주 론데스 카운티 전역의 사람들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 문제의 혐의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1964년 민권법 표제 VI에 따라 이 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표제 VI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표제 VI에 따라 법무부는 보건부 자금 수혜자가 불법적인 차별 행위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민권국의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 부서는 앨라배마 중부에 위치한 미국 검찰청의 지원을 받아 이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있는 개인은 이메일을 통해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 부서에 AL.Lowndes.EJ@usdoj.gov 또는 833-739-2103으로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의 민권법 시행을 통해 차별적인 환경 및 건강 영향을 해결하는 것은 민권과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민권과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www.justice.gov/c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